

세희/망의 길



세희/망의 길
VOL.22

기획특집
12대 집행부 1년의 결실
KTTU 포커스
2015 단체교섭
도전성공기
30년 골초들의 금연 선언
이슈 & 사회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는 5세대 이동통신의 미래

올해도 희망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1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히 성장하고
35년 이상 된 나무가 가장 좋은 열매와 기름을 생산합니다.

스페인 남부에는 올리브 나무를 심는 늙은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열매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열릴 미래를 봅니다.
희망은 미래에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힘은 희망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당장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나무가 잘 자라 풍요로운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조합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을 위해 스무 차례가 넘는 본회의와 실무소위를 거치며
열띤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5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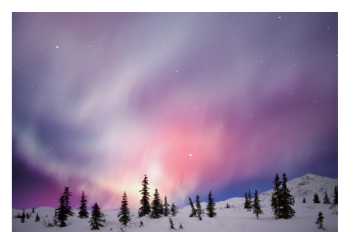
교섭기간 동안 있었던 치열한 논쟁과 대립은 모두
회사의 발전을 위한 노사의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한한 지지를 보내 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합원의 믿음에 만족으로 보답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vol. 22



KTTU NEWS	04	KTTU NEWS
KTTU 포커스	08	2015 단체교섭
기획특집	12	12대 집행부 1년의 결실
도전성공기	16	30년 골초들의 금연 선언
이슈 & 사회	18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는 5세대 이동통신의 미래
KTTU 카툰	22	초과근무수당과 가산금 제도
KTTU 클로즈업 01	24	기분 좋은 13월을 위한 연말정산 Tip
KTTU 클로즈업 02	26	나눔이 있는 연말,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KTTU 클로즈업 03	28	돼지 저금통 하나 가득 사랑의 온정이
컬덕트	30	와인 마케팅 이야기
길따라 멋따라	32	눈의 계절에 만나는 국외 겨울 여행지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노동조합 우수지부 6곳 선정 조합활동 활성화 위해 우수지부 격려방문

KT노동조합은 12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우수지부 6곳을 선정하여 격려 방문하고, 우수지부 인증 현판과 격려금을 수여했다. 이는 노동조합 사업계획 중 하나로 현장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수지부를 선정해 조합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우수지부로 선정된 6개 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고, 각 지부장들 상대로 '참여와 단결로 현장 조합원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 조합활동 점검 및 현장 조합원 고충처리 등 종합적인 지부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활동 지부를 지속 선정하고 이를 알리서 기본에 충실한 조합간부상 확립과 조직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한 6개 우수지부는 ▲강원고객본부지부 ▲남부산지부 ▲대전지부 ▲순천지부 ▲인천지부 ▲제주고객본부지부이다.



2016 단체(실손)보험 가입 2016년 단체(실손)보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7일(월) ~ 12월 17일(목) 18시까지
- 신청경로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단체보험
- 보험기간 : 1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신청항목 :
 - 직원 실손보험 : 입원의료 or 입원일당 중 선택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입원의료 일괄 적용
 -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의료
 - 배우자의 부모도 가입 가능(ERP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기준)
- ※ 신청기한 이후 신청항목에 대한 변경은 절대 불가
- 신청내용
 - 직원 실손보험(회사부담)
 - 입원 의료 or 입원일당 중 선택
 - 입원의료(급여성 90%, 비급여성 80%)
 - 입원일당(일당 4만원 지원)
- ※ 개인 실손보험 기 가입자는 입원일당 선택 유리
 - 가족 실손보험(본인부담)
 - 입원비(급여 90%, 비급여 80%) 지원(1천만원 限)
 - 대상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935년 7월 2일 이전 출생자 가입불가
 - 신청 금액만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초과액은 급여공제(16년 1월 급여 지급시)
- 보험문의 : 02-755-1004(동우기획)



- 관련문의 : 복지국장(031-727-2823)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홍보체험관 개관 행사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홍보체험관 개관행사가 12월 3일(목), KT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 흥정성 산업안전국장과 본사지방본부 이권배 조직국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수칙, 현장재해사례 2가지 부스를 비롯하여 소화기 방사체험, AED를 병행한 심폐소생술, 생활속의 안전흡연, 음주 등 4가지의 체험부스가 선보였다. 안전수칙은 교육생이 안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8가지 안전수칙과 현장작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통신주, 맨홀, 전기작업, 차량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홍보체험관은 다양한 구성으로 향후 조합원의 안전예방홍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2015년 UCC 총회

신규 회원사 가입의결 및 내년 사업방향 논의

KT노동조합을 비롯한 UCC 회원사 등 17개 기업과 공공기관 노사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공동 나눔협약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12월 4일(금) 11시 KT본사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UCC 정기 총회를 열고 ▲2015년 사업결산 ▲2016년 사업계획 ▲신규 회원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사 노사대표, 협력기관,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주요행사 동영상 시청 ▲의결결정 ▲신규 회원사 가입증서 수여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방향은 환경, 문화 등 UN과의 연계사업을 분기마다 진행하고 기존 베트남 화상 상봉을 포함해 글로벌 봉사지역 및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 간 시너지 극대화 및 소속 회원사 직원 복지향상 가능 사업 추진과 회원사 재직, 퇴직 사무까지 포함하는 사업 추진으로 외연을 확대해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6개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UCC 신규 가입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으로써 기존 11개의 회원사가 17개로 확대되어 UCC의 추진력을 배가시키고 회원사 내부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게 됐다. 이번 회원사 확대로 더 다양한 영역에서 노사공동의 사회공헌을 확산하고 회원사 간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UCC 회원사(17) : K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립공원관리공단, SH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기도시공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편, UCC는 환경캠페인, 글로벌 봉사활동 등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KT노동조합은 한국과 베트남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해 결혼이주여성들 현지 가족과 상봉할 수 있게 하는 등 글로벌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지속해 온 UCC의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1,200여 명의 베트남 현지 가족과 화상 상봉의 기회도 가졌다.

UCC 공동의장인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그동안 UCC는 다양한 기업의 노사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지속 노력해 왔다"며 "17개 회원사 모두 각각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이 UCC의 원동력이며, UCC 회원사와 노사가 소외된 이웃, 환경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객회선관리실 노후 전동식 사다리 대개체 추진

공급 후 10년 이상 노후화된 사다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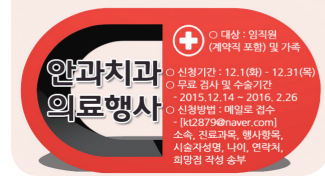
KT노동조합은 노후화된 고객회선관리실 전동식사다리를 대개체하기로 협의했다.

- 현황
 - 대개체 대상 : 1,827대 중 423대(23.2%)
 -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유휴 전동사다리 존재
- 대개체 기준



- 변경 전 : 고객회선관리실 MDF 길이 10M에 1대씩 전동식사다리 공급
- 변경 후 : MDF 선로측 → 1인 1대, 교환기 EN측 → 근무인력의 50% 산정
- 공급계획
- 전체 대개체 대상 423대 중 공급방식 변경을 통해 308대(신규227/재배치81) 공급
- 2010년 이후 공급한 사다리에 대해 재배치 활용
- 공사기간 : ~ 2016년 2월 28일

조합원 및 가족 의료행사 안내



2015년 동절기 조합원 및 가족 안과/치과 의료행사

조합원 및 자녀의 방학을 이용한 치과/안과 의료지원 행사

- 병원 : KT 제휴치과 및 안과
-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1일(화) ~ 12월 31일(목) 18시까지
- 무료 검사 및 수술기간 : 2015년 12월 14일 ~ 2016년 2월 26일
- 행사지점
 1. 치과 - 수도권 : 부평, 강남, 교대, 강서, 명동, 삼성, 을지로, 종로, 강동, 율곡, 창동, 미아, 구로, 일산, 안양, 분당, 중암
 - 지역 : 대전둔산, 광주상무, 광주남구, 충남태안, 부산서면, 부산가야점
 2. 안과 : 강남, 인천, 부산



2015년 동계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선정

직원자녀 글로벌 마인드 함양 어학연수

KT노동조합은 11월 26일(목) 9시부터 본사 KBN 방송실에서 KT 직원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명을 본부별 박스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노동조합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완규 정책실장, 최장복 조직실장이 참여했으며, 총 3,22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중학교 외 자녀, 기 당첨자(자녀기준), 부장, 센터장, 지사(점장 이상)과 조합간부는 제외했다. 이번 캠프 일정은 2016년 1월 4일(월)~1월 30일(토)까지 진행되며, 캐나다 공립학교 과제수행과 홈스테이, 그리고 스탠퍼드, UCLA 등 유명대학 탐방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합원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 우수자 포상

교육 1기 종료를 맞아 우수학생 선정

- 선정대상 : 초등자녀 영어교육 1기 참여자(교육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 포상내용
 - Best KT Junior상 : 8명
 - 선정기준 : 출석률 100%, Writing 고득점자, TOEIC Speaking 고득점자
 - 포상내역 : 블루투스 스피커
 - Best 노력상 : 6명
 - 선정기준 : 최초 대비 최종 레벨이 가장 향상된 학생, 스피킹 능력이 가장 향상된 학생
 - 포상내역 : 블루투스 이어폰 + 핸드폰 보조배터리
 - Best 칭찬상 : 6명
 - 선정기준 : 선생님/학습 매니저 추천 학생 (모니터링 결과 반영 선별)
 - 포상내역 : 5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Best 성실상 : 60명
 - 선정기준 : 출석률 93% 이상 중 참여도가 높은 학생
 - 포상내역 : 3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일정
- 선정내역 안내(개별 메일발송) : 2015년 11월 9일(월)
- 포상상품 발송 : 2015년 11월 13일(금) ~

2015년 GB(T) 포인트 2배 확대 및 11-12월 획득포인트 이월

GBT 포인트 확대 시행 및 잔여 포인트 이월제도 안내

- 2015년 12월 GBT 무선 Point 2배 제공(단, GB제외)
- 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31일(개통완료일 기준)
- 내용 : 기간 내 GBT LTE/3G 참여시 GBT Point 2배 제공
- ※ 현재 GB 포인트는 GBT의 2배 적용중
- 2015년 11월~12월 획득 포인트 중 잔여 포인트 2016년으로 이월
- '15년 최종 달성그룹의 포인트 초과분 중 11월~12월 획득포인트 '16년으로 이월
- 이월 된 포인트는 2016년 1월 LTE개통 건이 있을 시 적용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성과급 지급기준

G직: 125%, A직: 105% 지급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A직, C직 및 Sales직(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지급률 - G직: 125%
 - A직: 105%
 - C직/Sales직 : 월평균지급률(62.5%)에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계산기간 : 2015년 10월 1일 ~ 12월 31일 (92일)
- 지급일 : 2015년 11월 25일(수)
- 지급액 감액
- 계산기간 중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감액
-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결근, 출산 등에 따른 무급일수
- 성과급 지급 이후 계산기간 중 감액사유 발생 시 추가감액 정산
- 기타 성과급 계산을 위한 사항은 보수규정 적용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계유니폼 현장 품평회

현장의견 적극 반영하여 디자인과 편의성 강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4일(수) 오후 2시, 대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16 하계 현장유니폼' 선정을 위한 품평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 품평회는 지난 2일에 열린 1차 품평회에 이은 것으로, 점퍼 5종, 작업복 5종을 선택하여 11월 9일에 최종 품평회를 거친 후 선정, 현장에 지급한다.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디자인과 편의성이 강조된 이번 하계 현장유니폼은 2016년 4월 중순경 납품한다.





조합원이 미래, 조합원의 자존심과 미소 되찾자! 2015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조합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조합활동이자 한 해 농사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마다 요구부터 타결까지 뜨거운 논의와 공방이 거듭되는 사업이다. 2015년 단체교섭에 임하는 KT노동조합 12대 집행부의 각오는 어느 해 보다 더 비장했다. 단체교섭을 앞두고 정운모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모아 이렇게 피력했다. '민영화 이후 노동조합과 현장이 걸어진 여정은 희생과 양보, 인내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현장의 희생을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조합원들이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섭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견 반영한 교섭전략 점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먼저 단체교섭을 위한 집중교육과 연구에 들어갔다. 9월초부터 교섭이 본격화 된 10월 중순까지 한 달 내내 노동계 동향 분석은 물론 이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 사항을 공유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단체교섭 안건을 확정하기 위해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현장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밀착형 간담회를 통해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조합원의 직무 및 조직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체교섭 승리를 전인하기 위한 5일간의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 또한 조합원 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좀 더 깊이 수렴하고 교섭위원들이 역할을 나눠 모의교섭을 진행하며 실천에 대비하기도 했다.

5개 분야 8대 요구,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노동조합은 임금·복지·제도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드디어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2015년 단체교섭 요구(안)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 식년 의무휴직을 포함한 총 23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1차 본교섭..난항 끝 8대 요구안 일괄 상정

KT노동조합은 10월 22일(목) 오후 2시, 분당본사에서 개최한 2015년 단체교섭 상견례 및 1차 본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5개 분야 8대 요구안 및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일괄 상정시키고, 그간의 현장의 노고를 바탕으로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회사가 진정으로 1등 KT를 원한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8대 안에 대한 확고하고 화통한 결단을 보여 상생의 실체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 상정을 두고 한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견됐으나,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안전이 상정되기



도 전의 회사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사측을 강하게 압박, 5개 분야 8대 요구안 및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의 일괄 상정을 밀어붙였다.



효율적 접근 위한 릴레이 실무소위원회

노사는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목적으로 본교섭과는 별개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26일(월)부터 실무소위와 축조심위를 열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임금, 고용 등 경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안식년 의무휴직제도 ▲근속승진제도 도입과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준연봉의 기준급과 역량급을 통합할 것과 ▲연간 성과급을 12개월로 평준화하여 통상임금화 하는 등 인사/보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3차례의 본교섭과 임금, 복지, 단협 등 각각 5차례가 넘는 실무소위를 속개하면서도 극명한 견해 차로 인해 별 진전 없이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1등 KT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조합원 사기진작

사측 대표위원의 결단 촉구

교섭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노동조합은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최고의 투자는 조합원 사기 진작 책을 쓰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들의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은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지만, 노동조합은 종사원 가치 향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것이 아니겠냐고 끊임 없이 설득하고 압박했다.

2015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노동조합은 회사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도 교섭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의 창구는 열어두었다. 회사의 입장변화가 나온 것은 조합의 경고가 있고 나서인 11월 13일,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회사는 한 발 짝 물러서 상당부분 조합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합원 총회 결과 90.3%의 찬성으로 가결, 드디어 24일(화)에 노사는 협약서에 정식 조인했다. 현장간담회와 조합원 설문조사, 타 단체교섭에 대한 연구와 모의교섭을 통해 확정된 노동조합 연구에 대해 그간 현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었다. 정운모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회사와 함께 척박한 시장환경을 뛰어넘겠다는 조합원의 애사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회사도 이러한 조합원의 충심을 헤아려 따뜻한 경영으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 안정화를 위해 조합원의 목소리와 업계, 노동계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5 단체교섭 경과

- 2015년 4월 21일(화) : 노동조합,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 2015년 9월 14일(월) ~ 18일(금) : 현장 의견 조사
- 2015년 10월 1일(목) ~ 07일(수) : 조합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2015년 10월 15일(목) :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 2015년 10월 22일(목) : 2015 단체교섭 1차 본회의 (5개 분야 8대 요구 일괄 상정)
- 2015년 10월 26일(월) : 단협,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1차 실무소위
- 2015년 10월 27일(화) : 단협,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2차 실무소위
- 2015년 11월 03일(화) : 2015 단체교섭 2차 본회의
- 2015년 11월 04일(수) : 단협,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3차 실무소위
- 2015년 11월 05일(목) : 단협,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4차 실무소위
- 2015년 11월 10일(화) : 2015 단체교섭 2차 본회의 속개
- 2015년 11월 11일(목) : 단협,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5차 실무소위
- 2015년 11월 16일(월) : 2015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 2015년 11월 19일(목) : 2015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90.3% 찬성으로 가결)
- 2015년 11월 24일(화) : 2015 단체교섭 협약 체결

15년도 단체교섭

10
11

2015년 합의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 KT의 역할까지 고려한 상생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 분야는(안식년 휴가 제도 등)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금분야

- 임금 정액인상 65만원(평균 1%), 인사평가인상률 2.7% 인상(기반영)
- 성과보로금(PS 포함) 130만원 및 판매장려금 100만원 지급(3.5% 인상효과)

세부내용

- 협약임금
 - 정액 65만원 인상 (평균 1% 수준, 기준급 + 역량급 405,600원 인상), 성과급 177,45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66,550원 인상
 - 지급일: 2015. 12. 24
- 성과보로금(PS포함)
 - 130만원(금년에 한해 기 합의된 PS지급조건 완화)
 - 지급일: 2016. 1월 중
- 판매장려금
 - 100만원 (GiGA인터넷 100만 달성을 위한 판매촉진활동 지원)
 - 지급일: 2015. 12. 24
- 총 7.2% 임금인상 효과



제도분야

- 장기근속자 안식년휴가 부여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직원 동기부여 및 정도경영 강화를 위한 인사/보수제도 개선

세부내용

- 안식년휴가 도입
 - 근속 10/20/30년 도래시 2~3주의 안식년 휴가 사용
 - 장기근속보로금 신설 및 상향 근속 10년: 100만원 (신설), 20/30년: 150만원(상향)
 - 시행일: 2016. 01. 01
- 초과근무수당 개선
 - 초과근무 인정사항 상향 : 23시간 ▶ 24시간
 - 감액기준 완화 : 월 휴가 7일 초과시 ▶ 10일 초과시
 - 시행일: 2016. 01. 01
- Pay-Band 제도 개선
 - 당해연도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1.1일자로 Pay-Band 하한을 조정
 - 시행일: 2016. 01. 01
- 현장 장기근무 고성과자 발탁승진(2015년 한)
 - 현장에 근무하는 대리/과장 10년차 이상자 중 최근 4개년 30마일 이상자 대상 인사위원회 심사
 - 대상부서: 지역고객본부 지사·마케팅부·Biz영업부, 지역NW운용센터, 사업·지원부서의 예하현업
 - 시행일: 2015년 직급승진시
- 인사규정 개정(강직조항 신설)
 - 허수 경영·성과왜곡이 승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직급·기준연봉 조정
 - 시행일: 합의일 이후 강직사유 발생건



복지분야

- 급식·통근보조비 및 야식비 지급기준 합리화
- 가계부담 경감(의료비, 긴급가계자금 대부) 및 일체감 조성(유니폼)

세부내용

- 급식·통근보조비 상한 폐지
 - 월 21일 상한(273,000원) ▶ 폐지(출근 일수에 따라 실적급 지급)
 - 시행일: 2016. 01. 01
- 야식비 현실화
 - 1,400원 ▶ 3,000원(교대근무자의 석근 또는 야근 1일당)
 - 시행일: 2016. 01. 01
- 의료비 자녀지원 기준연령 상향(건강보험증 등재)
 - 만 20세 이하 자녀 ▶ 만 26세 이하 자녀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지원연령 상한 미적용
 - 시행일: 2016. 01. 01 진료분 부터
- 긴급가계자금대부 확대
 - 연간규모 200억원 ▶ 300억원
 - 2016. 01. 01
- 하계유니폼 지급
 - 5만원 상당(하계) 점퍼
 - 기 합의된 하계유니폼 지급 대상자는 제외
 - 시행일: 2016년 상반기 중
- 사내근로복지 기금
 - 230억원 출연
 - 시행일: 연내 출연



2015년 12대 집행부 1년의 결실을 돌아보며 현장중심정책 강화로 희망과 결실 꽃 피운다!

KT노동조합 12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정운모 위원장은 취임 초기, “지금껏 현장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유독 지난 3년은 조합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심했다”며 “수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회사가 조합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강력한 현장중심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현장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벌인 후 제도개선을 발 빠르게 진행해왔다. 중앙상무 집행위원들을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에 파견, ‘전국 조합원 간

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근로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회사측 실무진과 협의를 생활화, 현장요구에 최대한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진단하여 정책을 보완 및 개선하고 조합원과의 대화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 12대 집행부 2년 차의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로 회사에 협의를 요구해 더 나은 변화, 발전적인 도약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12대 집행부 1년 차, 그간의 활동과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한 건의사항과 조합원의 기대를 모았던 ‘결실’ 베스트 10



1 자기계발비 지원

매년 1인당 50만원 지급

- 1/1~12/20 사용한정, 연도 내 미사용 잔액 자동소멸
- 지원금은 연간 한도액 내 1회 또는 여러 번 신청가능



2 긴급가계자금 대부 확대

재직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등 긴급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저금리 대부 시행

- 대부금액 : 1천만원 한도(최소 2백만원)
- 대부주기 : 반기 1회(상반기_1월, 하반기_7월)
- 대부조건 : 이자율 2%, 5년 상환
- 2016년부터 총 연간규모 200억→300억원으로 확대 시행



3 삼성케어 프로그램 운영

KT Wiz-Day와 우리가족 Healing-Day 시행

- 조합원 가족 초청 행사
 - KT wiz 야구 주말경기 테이블석(4인기준) 티켓과 음식제공
 - 2박3일 수련관 생활입소, 여비지원, 기념품증정, 주변 관광지/명소관광 등

특별명예퇴직자 대상 삼성케어 프로그램

- 초청행사, 통신비할인, 수련관 이용 확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재취업 알선



4 노후 집기/기구류 대개체

낡은 옷장 교체(2015년 863개)

- 현장 조합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된 정도가 심각한 철제옷장 등을 조사해 매년 단계적 대개체 추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동사다리 교체 (2016년 2월까지 308대 공급)

- 공급후 10년 이상 노후화 된 고객회선실 전동식사다리 대개체 추진

BEST 10



5

초등자녀 화상영어 지원

조합원 초등자녀(5, 6학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시행

- 상반기 200명, 하반기 160명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와 개인별 첨삭지도



8

초과근무수당 개선 및 감액기준 완화

근무여건 개선과 장기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 (2016년부터)

- 지급기준 산식에 초과근로 인정시간 1시간 확대
- 통상임금 인상
- 감액기준일 휴가일수 월7일 → 월10일 초과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6

체육행사비 지원금 인상 / 급식통근보조비 합리화 / 야식비 현실화

체육행사비 매년 1인당 10만원 지원

- 춘계/추계 체육행사 시 각 5만원씩

급식통근보조비 상한 폐지

- 2016년부터 월 21일 상한(27만3천원) 폐지로 실 근무일수로 지급

야식비 상향 지원

- 2016년부터 교대근무자의 석근(18시-익일9시) 또는 야근(22시-익일9시) 때 1일당 3천원 지급



9

안식년 휴가 도입 및 청원휴가 제도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휴식부여를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 도모

- 실 근속 10/20/30년 도래 시점부터 1년 이내 휴가사용
- 도래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안식년 휴가부여일 소멸
- 근로조건 및 급여는 정상근무 시와 동일기준(단,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통근비는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

친가/외가 구별 없는 청원휴가 기준개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시 청원휴가일 (1일 → 5일) 확대



7

통신비/의료비 지원 개선

통신비 지원

- 집(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중 월 통신비 1만원 지원, 본인희망 1회선 선택가능

의료비 지원

- 급여성 본인부담금(가족포함)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액 지원
- 비급여성 본인부담금(가족포함) 중 초음파 진단료 30% 지원
- 2016년부터 만20세→만26세 이하 자녀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장애인 자녀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음



10

장기근속자 보상 확대

근속 10/20/30년 대상자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 및 보로금(2016년부터 근속 도래월 급여지급일 별도계좌) 지급

- 근속 10년 : 100만원(신설)
- 근속 20년 : 150만원(상향)
- 근속 30년 : 150만원(상향)



30년 골초들의 금연 선언 목포에서 무슨 일이?



30년 경력의 쟁쟁한 깃쟁가들이 모여 있는 전남유선운용센터 목포운영팀. 마누라 없이는 잘살아도 담배 없이는 1분도 못 참는다는 니코틴 중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선언했다. 마치 금연 바이러스에 감염이라도 된 듯 한 날, 한 시에 벌어진 그들의 금연 스토리에 모든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뜨거운 금연 열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하루에 두 갑은 기본이고 3갑 이상 피울 때도 많았죠.”
“밤새 장애복구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저를 위로해주는 건 담배밖에 없더군요.”
“주머니 속 담배와 별도로 서랍 속에 몇 갑을 늘 비축해둬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담배를 물고 있을 것 같은 그들이 무 자르듯 단번에 금연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 사연은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에 목포지부장을 역임하신 박철오 선배님이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금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저는 폐암으로 사망한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온 후 금연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참에 동료들에게 금연을 권유하면서 팀 전체에 금연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박전주 조합원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열어 ‘금연 243일 째’라는 문구를 자신 있게 보여준다. 목포운영팀 조합원들은 금연 약속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 들키면 벌금을 걷기도, 사비를 모아 금연에 도움이 되는 사랑이나 군것질 거리를 몇 박스

씩 구입해 서로를 격려하며 금연 분위기를 다져갔다. 그러던 중 목포운영팀 조합원들의 금연의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주어진다. 노조와 회사에서 금연 캠페인이 벌어지고 금연 성공자들에 대한 포상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조합원들은 “우리도 향균(함께)에 해볼랑가?”하는 도전의식을 느끼며 더욱 결의에 찬 마음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갔다. 이후 그들은 목포의 명물 ‘유달산’을 본떠 5명의 조합원이 단체 부문에 응모, 지난 11월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당첨 받기에 이른다. 30년 만에 처음 금연을 시도해 성공한 김천호 조합원의 이야기에 목포운영팀의 뜨거운 금연 열기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 팀에서 저보다 심한 골초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갑 이상을 피우는 그 친구가 금연에 성공하길래 저 또한 크게 자극 받고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우던 제가 이제는 옆에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못 참을 정도가 됐으니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나 다름없죠.”

조합원들의 의리로 건강을 지켜낸다

20명이 근무하는 목포운영팀에서 금연자는 모두 12명. 다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피워온 담배를 한 순간에 끊었으니 금단 현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금연을 다짐하고도 다시금 담배를 입에 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금단현상을 두고 목포운영팀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전주 조합원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두통이었다고 한다.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니까 처음엔 머리가 엄청 가려웠어요. 가려움증은 두피가 아닌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긁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담배를 잊기 위해 7km 거리의 출퇴근길을 걸어 다니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금단현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담배 생각이 가장 간절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취미인 최문희 조합원은 담배를 끊기 위해 친구도 멀리하는 각고의 의지를 발휘한다.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거나 당구장에서 담배를 엄청 피웠습니다. 금연 결심하고 당분간 친구들과의 연락을 자제했어요. 담배 끊은 후론 등산 가셔도 숨도 차지 않고 유달산 꼭대기까지 숨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단번에 올라가는 체력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 금연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금연 성공 노하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간의 금단을 이겨내기만 하면 누구든지 금연할 수 있어요.”
노하우는 간단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의 흡연욕구를 뺏

달 동안만 참아내면 금연은 자연스레 성공할 수 있는 법. 이 강문 조합원은 금단의 욕구에 대해 그만의 지혜로운 해석을 들려준다.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조금만 참으면 금단현상도 사라지고 흡연 욕구도 사라질 텐데, 돌이켜 생각하면 과거 담배를 피웠을 때 순간을 참지 못하고 담배 피우려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보조제가 아닌 나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금연할 수 있어요.”
담배를 끊은 지 8개월 지난 지금, 조합원들에게선 흡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거무튀튀한 낫빛과 퀴퀴한 담배냄새에 절 어있던 조합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듯 전에 없던 활기가 사무실에 넘쳐난다. 박순영 조합원은 흡연 후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한다.
“10년 전 눈 수술하고 합병증이 찾아와 금연을 했어요. 물론 몸이 회복되고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입을 가릴 정도로 담배냄새가 심했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마음 편히 어울리며 대인관계의 불편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동료들 덕분에 이제는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에 대해 우리 몸은 중독으로 반응한다. 중독의 시간이 길수록 그것을 끊기란 정말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목포운영팀에서 30년 동안 뿔어온 담배연기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의리와 애정이 30년의 세월보다 깊고 진했기 때문이다. 담배를 끊고 싶은 조합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동료들에게 고하라. ‘이참에 우리도 함께 금연해보자’고 말이다.

2015 금연 성공 단체팀 ‘유달산’

전남지방본부 전남유선운용센터지부

왼쪽부터 박순영, 이강문, 김천호, 박전주, 최문희



ISSUE & SOCIETY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는 5세대 이동통신의 미래

5세대 이동통신의 성격은 다소 특별하다. Human to Human,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Human to Gadget'이 5세대 LTE 시스템에서 서서히 구현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기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영화 같은 미래가 속속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IS

TRP

KT trade union

18
19

영화 속 마술이 현실로 나타난다

1990년대,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안경을 쓰고 게임을 즐기는 닌텐도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커다란 TV나 별도의 디바이스를 갖추지 않더라도 손바닥만 한 작은 닌텐도만으로 수많은 종류의 게임을 그것도 생생한 가상현실을 통해 즐길 수 있었다. 기존 게임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닌텐도의 탁월한 가상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저들 사이에선 한 가지 공통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이렇게 재미난 게임을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럿이 함께 즐기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었다. 14.4kbps에 불과한, 그것도 모바일이 아닌 유선 데이터 전송 속도로 상호 간의 버추얼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당시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나 볼 수 있는 요원한 미래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이 현실로 나타나는 요즘, 모바일을 통한 상호 간의 가상현실은 더 이상 닌텐도가 아닌 내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다.

14.4kbps 아날로그에서 초고속 LTE까지

사람과 사물이 소통하는 5세대 첨단 이동통신 시스템의 태동을 앞둔 현재, 과거 이동통신 시스템의 시작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자. 현재의 4세대 이동통신이 구현되기 전 1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있었다. 1984년 KT전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이 구현한 1세대 시스템은 최대 전송속도 14.4kbps에 불과한 최초의 아날로그식 모바일 플랫폼이었다. 오직 음성 서비스만 가능했으며 기지국의 부족과 기술력의 부재로 통신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1996년에는 1세대 플랫폼보다 진일보한 세계 최초 WCDMA 기반의 2세대 이동통신이 선을 보였다. 기존 1세대에 비해 전송속도가 무려 14.4kbps에 달하는 초특급 시스템으로 90년대 후반 휴대폰 대중화에 신호탄을 쏘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MAH

WCDMA는 음성 뿐 아니라 문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동통신 서비스라 할 수 있다.

2세대라 불리는 이 시기는 우리나라 모바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반도체와 전자 기술을 발판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종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단말기 회로 및 통신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그 결과 WCDMA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올리게 된다. 앞선 기술을 토대로 휴대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더불어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형성을 통해 기술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모바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1세대에서 2세대로의 변화가 양적인 진보였다면 3세대 이동통신의 출현은 데이터 전송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질적 비약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2007년 애플사로부터 아이폰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이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3세대 이동통신은 14Mbps의 속도로 사진과 영상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었으며 테블릿 폰과 모바일 컴퓨터의 출현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정해진 대역폭을 초과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데이터 속도와 용량에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당시 3세대 이동통신은 사용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4세대 이동통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은 무엇보다 속도였다. 문자만을 주고받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고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

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해야 했으니 이동통신업체들은 앞 다투어 시스템 전체를 첨단 사양으로 바꿔야 했다.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75Mbps에 이르는 4세대 이동통신은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LTE(Long Term Evolution)로 명명된 4세대 이동통신은 최대 300Mbps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의 양적 진보를 이루며 질적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바로 상호 간의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상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시스템 용량과 속도가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800Mhz 대역의 주파수 정도로는 더 이상의 속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5~28Ghz 혹은 73Ghz에 이르는 초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세대 이동통신 플랫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IoT의 끝판왕,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렇다면 5세대 이동통신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물론 가장 큰 특징은 기존 4세대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들 수 있다. UHD급 화질 전송은 물론, 가상현실을 두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실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막힘없는 광대역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 시작된 사물인터넷(IoT)도 더욱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의 냉장고와 보일러 및 에어컨, 보안시

스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제품은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표로 낮은 전력을 소비하는 고효율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 손꼽을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끝판왕은 바로 무인자동차의 출현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저 의자에 앉아 편안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듣기만 하면 된다. 무인자동차가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트래픽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보다 먼저 위험물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무인자동차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는 재난 안전망 구축도 포함된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LTE 기반의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 통신망이 우리나라에서 구축되고 있다. Public Safety-LTE로 명명된 재난안전망은 초고속 데이터 통신 기반을 통해 사고 순간의 상황을 초고화질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방재시스템의 구현과 함께 맞물려 구축되고 있다.

Public Safety-LTE가 구현되면 영화에서나 봤던 원격 수술이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초소형 수술용 로봇이 등장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의 조종에 따라 응급환자를 재난현장에서 즉석으로 수술하는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원격수술의 관건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현인데 초고속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개막되면 원격의료 시스템도 비약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모든 사람과 물건이 스마트폰 속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5세대 이동통신의 거대한 물결은 외국에서 한창 봄을 타고 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최근 5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실증 시험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공개하고 세계 이동통신사가 목표로 하는 2020년보다 앞서 5G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우리나라의 삼성을 비롯해 알카텔루슨트, 에릭슨, 노키아, 시스코, 퀄컴 등과 주요 통신장비 업체와 함께 기술을 연구 중이며 조

기간 초기형태의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부문(ITU-R) 이동통신작업반(WP5D) 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의 새로운 명칭과 핵심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비전 초안 및 2020년 표준 완료 일정을 발표했다. 5세대 이동통신의 명칭은 IMT-2020이며 최대 전송속도는 20Gbps로 정해졌다. 이는 1km² 면적에 약 100만 개의 기기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목표로 KT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은 높아진 속도와 고사양의 스마트폰이다. 기가

인터넷 수준에 맘먹는 모바일 데이터 전송속도를 바탕으로 VR(Virtual Reality)이 완벽하게 구현되면 전 세계 소비자 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재난 현장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5세대 이동통신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재난과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인류의 행복 증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Internet of Things





내년에는 좀 바뀐다고요?

초과근무수당과 가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만화 김재욱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이란?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시간당 임금에 일정의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죠~.

내가 독수리라서 야근하는 건 아니거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증률을 높여 계산하는 겁니다.

싫으면 일을 줄이시든가.

돈 받는다.

OK



매월 정해진 시간에 대한 임금 100%에 50%를 가산하여 150%를 주는데, 내년에는 1시간을 추가 상향 조정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표로 볼까요?

포괄적 임금 적용!! 하루 근로시간 시종 전후, 약 1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인정하는 거죠.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현행	가. 상시일근자 : 기준연봉월정액÷209×1.5×23시간 나. 교대근무자 : 기준연봉월정액÷209×1.5×(18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
개선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가. 상시일근자 : 기준연봉월정액÷209×1.5×24시간 나. 교대근무자 : 기준연봉월정액÷209×1.5×(19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



1시간을 더 주다니, 이거야말로 이득!!

코이득!!

+1시간



둘째,
가산금이란?



가산금이란 물론 돈을 더 얹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휴일근무수당!!

오늘은
바깥날



일반직원이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근로시간(전일 8시간/ 반일 4시간)에 1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을 휴(무)일가산금이라 합니다.



야간시간대(22시~6시)는 50%를 더!!

내 달걀을 제거수술 비용 될래나?

고끼오... 낚시당!!



이 경우는 교대근무자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근무(교대)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전신주나 지하 등 현장 근무자는 7시간을 더 가산해 지급하는데 이것은 초과(현장)근무가산금입니다.

붓대야~!! 내가 이 낙에 산다.

나도!!

※ 단, 월 13일 이상 현장 근무

초과근무수당 감액 기준 내년부터는 월 10일 초과시간 감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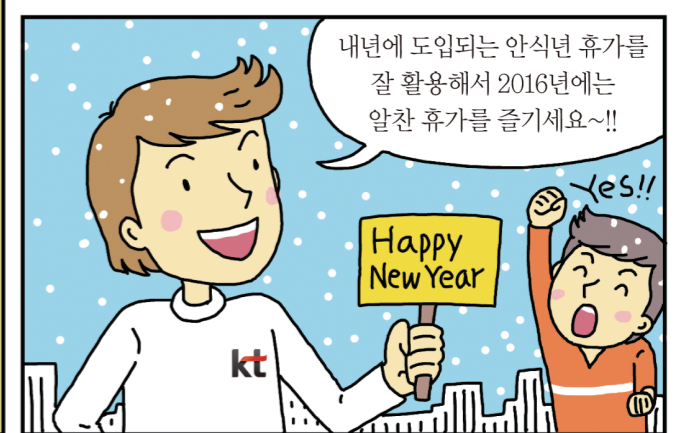
휴가일수가 7일을 넘으면 초과근무 수당이 감액됐지만 10일까지 감액 없음!

휴가를 월 10일 넘게 쓰면 실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



자~ 이제 잘 아셨죠?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세요. 내년에도 우리는 주욱 여러분 편입니다!!

2016



내년에 도입되는 안식년 휴가를 잘 활용해서 2016년에는 알찬 휴가를 즐기세요~!!

Yes!!



기분 좋은 13월을 위한 연말정산 Tip

세금 환급의 계절, 13월이 머지않았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그리고 소비해온 이력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한푼이나마 세금을 아끼기 위한 샐러리맨들의 절세 전쟁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달아오르는 중이다. 지난해와 달리 바뀐 2015년 연말정산 내용을 짚어보고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둘씩 체크해보자.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도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매년 바뀌는 세법과 더불어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탓에 샐러리맨들은 연말정산을 '난수표 부기'라 부르며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다행히 연말정산도 수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니 올해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정산에 대응하자.

국세청은 올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펼친다는 취지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개편을 완료했다.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제 및 한도액을 계산해 종이 출력 없이 온라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공제 내용과 한도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 눈에 띈다. 어떤 부분의 공제가 부족한지 사전 예측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4일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회원가입만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기준은?

신용카드에 사용에 따른 공제도 제공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전통시장 이용액 그

리고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도 계산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두자.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11월부터 제공되는 신용카드 공제 예상 서비스는 지난 10월 이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 결제취소 등으로 내용이 다소 바뀔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의료비 등 공제항목과 함께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후엔 추가 공제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의 항목별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유용한 팁으로 알려주고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란 지급명세서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이용해 국세청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다. 간소화 자료가 부재한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이 그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공제항목을 고르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본인이 직접 명세서에 내용을 삽입할 수도 있다. 자녀의 교복값, 본인이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 등을 스스로 입력해 공제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자. 과거에는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만 간편하게 재입력하면 된다. 경정청구 진행상황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은 커녕 납부해야 할 세금만 더욱 늘어나 샐러리맨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세월 마련을 위해 샐러리맨들의 돈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에도 이러한 풍경은 다시금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숨 쉴 구멍이 전혀 없는 아니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거나 연금저축을 가입해 세액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세법 시스템에서 연금저축상품은 샐러리맨들

에게 절세를 위한 큰 도움을 준다. 연금저축상품은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5세가 지났을 때 4백만 원의 연 납입액 한도 안에서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도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최대 7백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저축 역시 소득공제 효과가 크며,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세제 혜택이 높다.

연말정산 막바지 꿀팁

1. 공제신고서 온라인 자동 작성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기존처럼 일일이 인쇄하고 수기 작성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2. 공제 혜택 50% 쟁점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는 소식! 아래 세가지 공식을 기억해 두세요.

-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많이 쓰면 공제 up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 공제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 아끼면 기부도 하고 세금감면도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기부금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사실!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콜센터 등에서 포인트 기부할 수 있고, 기부처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의료비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아래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난임시술비(올해부터 추가)
- **의료비 공제불가능 항목**
간병비, 산후조리원 이용, 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국외 의료비

까치밥 익어가는 계절 나눔이 있는 연말,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이맘때면 시골 어디서나 높다란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까치밥을 볼 수 있다. 까치밥은 까치 따위의 날짐승이 먹도록 따지 않고 남겨 둔 감이다. 곧 닥칠 모진 추위에 먹을 거리마저 곤궁하던 시절, 짐승까지 배려한 우리 조상들의 나눔정신이다. 나눔과 기부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계층간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발적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의 건강함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기부문화는 어떨까? 미처 몰랐던 한국의 기부문화를 들여다 보자.

고액 기부자의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비율은 35% 수준에 그친다. 2012년 조사된 'GDP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미국이 2.3%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 1.35%, 캐나다 0.73%, 영국 0.7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0.53%에 그쳤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원조재단'이 각국의 기부 금액, 자원봉사 시간, 납을 돕는 비율 등을 조사해 작성한 '2014 세계기부지수'에서도 한국은 135개국 가운데 60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분쟁국가인 시리아(30위)와 이라크(43위)보다도 낮았다.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7년 '아너 소사이어티'를 설립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일억 원 이상을 기부 했거나 5년 내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모델이다. 현재 설립 8년 만에 회원수 880명을 넘어서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은 다양한 기부자들

연말 뉴스를 살펴보면 어렵게 모은 돈을 매년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 지자체를 통해 쌀이나 연탄, 한푼 두푼 모은 금일봉을 전달하는 고마운 이웃도 있다. 최근에는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83세의 할머니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평생을 노점상, 청소·공장노동자로 힘들게 일해 마련한 5억 5천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유산기부 형식으로 기부했다. 또 경기도의 정부의 노부부는 전 재산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3건을 KAIST에 기부해 화제가 됐다. 양말을 껌매 신고 밀창 떨어진 운동화를 신으며 모은 재산을 썩지 않는 곳에 쓰고 싶다는 부부는 인

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KAIST에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09년부터 매달 월급의 10%를 기부해 86회에 걸쳐 1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급 끝전 나누기'를 실천한 시청 공무원 등 주변의 숨은 영웅들이 많았다.

연말 기부자가 몰리는 이유와 다양한 이색 기부

연말 연시에 집중되는 모금활동은 국민 정서와 그동안 정립된 연말 기부 문화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추운 날씨가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기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12월 기부문화'를 이끌며 '겨울은 기부의 계절'이라는 인식을 자리잡게 했다. 전 재산을 기부하는 대대적인 기부 활동이나 꾸준한 실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기부를 망설이고 있다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기부 캠페인으로 나에게 맞는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헌혈 기부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전혈 헌혈과 혈장성분 헌혈은 3,500원, 혈소판과 혈소판혈장성분 헌혈은 6,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모인 금액은 백혈병소아암 환자 치료비, 저소득층 백혈병환자 치료비,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등 기부권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미리내 기부

카페에서 내가 마신 커피 값과 함께 누군가가 마실 커피 값을 미리 내는 서스펜디드 커피가 화제다. 서스펜디드 커피를 우리 정서에 맞게 응용한 것이 '미리내 가게'다. 미리내 가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미리 낸다는 뜻으로 다른 손님을 위해 미리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면 가게는 소외 계층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부활동이다.



걷기 기부

빅워크는 걷기만 하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기부다. 스마트폰 GPS 사용 가능 상태에서 빅워크 앱을 실행시켜 걸어 다니면 10m당 1원씩 기부할 수 있다. 적립된 기부금은 절단장애아동을 위한 의족 지원, 소방관을 위한 소방장갑 지원, 아프리카를 위한 식수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사랑나눔기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동참을 위해 1구와 2,000원씩 매월 희망자에 한해 자동공제가 된다.

UCC기금

1구좌당 1,000원씩 희망자에 한해 매월 공제된다.

돼지저금통 하나 가득 사랑의 온정이



부산지방본부 진주시부

돼지저금통에 티끌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이웃을 향한 조합원들의 온정 또한 깊어간다. 진주시사와 6개 지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뿌린 온정의 씨앗이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다.



6개 지부 조합원과 함께 '사랑나눔 씨앗 만들기'

오며 가며 돼지저금통에 동전 하나씩 집어넣기를 1년. 저금통이 서서히 채워지고 가끔씩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면 큰 마음 먹고 천 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썬서 넣기도 했다. 1년이 지나고 제법 묵직해진 돼지저금통을 열어보며,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나?'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기도 한다.

조합원들의 정성이 티끌처럼 쌓이면서 커다란 온정의 결실을 이루었다. 진주시사와 6개 지부가 함께한 '사랑나눔 씨앗 만들기' 활동에 모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열기 또한 뜨거웠다. 지난 2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주시사의 영업부와 CS부를 비롯해 거제, 통영, 사천, 거창, 산청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돼지저금통을 수거한 결과 총 2,023,940원이 라는 큰돈이 모아졌다.

조합원들은 가슴 조리는 마음으로 돼지저금통을 개봉하며 돼지저금통과 얽힌 즐거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상적인 것은 동료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동료들 사이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어주는 나름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일궈왔다는 것이다. 돼지저금통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가 생길 때면 조합원들은 사내 밴드를 꾸려 각 지점과 팀 별로 공유하며 그들만의 따뜻한 에피소드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조합원들은 '돼지저금통 예쁘게 꾸미기' 이벤트도 열었다. 화려한 장식과 액세서리를 한 러서리 돼지저금통이 있는가 하면, 물감으로 화장한 귀여운 돼지저금통도 눈에 띈다. 평범한 돼지저금통을 매개로 조합원들은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작지만 소중한 그들만의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갔다.

돼지저금통 개봉 후 모금액 별로 순위를 매기기도 했지만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돼지저금통에 쌓인 동전이 많진, 적

긴 간에 진주시사 조합원들이 품고 있는 온정의 마음씨는 그 어떤 재화보다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이다. 돼지저금통 개봉 행사에는 온정이 마음씨를 자축하며 모두가 함께 피자를 먹는 작은 이벤트도 함께 벌어졌다.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온정의 씨앗을

조합원들의 정성이 담긴 돼지저금통 모금액은 두 번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에 쓰였다. 첫 번째는 지난 추석 명절 당시 6개 지부의 지부장과 모든 간부들, 그리고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우이웃을 찾아 알찬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옥봉지역아동센터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6개 지역의 아동센터 및 노인요양원 등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는 등 뜻 깊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은 얼마 전인 지난 11월 27일 두 번째 사랑나눔 씨앗 봉사활동에도 이어졌다. 경남 진주시 상봉동에 자리 잡은 5가구의 산동네 마을을 찾아 노사가 합동으로 연탄 1천 장을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펼쳤다. 손에서 손으로 서로가 징검다리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연탄 한 장, 한 장이 전달되어 쌓일 때마다 노사의 화합 또한 깊어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합원들과 함께 연탄배달에 참여한 진주시부 강동만 지부장은 "우리의 작은 도움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뜻 깊은 하루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진주시부의 노사가 함께한 1인 8시간 봉사활동과 사랑의 저금통은 부산본부에서 가장 먼저 봉사시간을 인증 받았다. 이후에도 조합원들로부터 돼지저금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와인 마케팅 이야기

전통적 와인 문화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다!

세계적으로 와인시장에 나와 있는 와인 브랜드는 거의 2만종 이상이다. 그만큼 와인 판촉 경쟁도 치열해졌다. 30년 전만 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고가의 브랜드로 세계 와인시장의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국내에서도 질 좋은 세계 각지의 와인을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와인은 해외 고급 주류 이미지에서 국내 주류계의 '주류'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페루아에 마케팅을 입히다

세계적으로 30년 전에 비해 최근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은 거의 절반, 프랑스는 35%나 감소했다. 유럽의 와인 수출 점유율도 8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09년 기준 62%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독일, 호주, 미국,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등 다양한 국적의 와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와인시장도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07, 2008년 상반기에 정점에 올랐다가, 세계 금융위기 후 수입이 급속히 하락했다. 국내 경제여건이 어렵다고는 하나 여전히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와인 점유율은 칠레산이 점차 높아져 상위권에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지역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다. 미국과 호주산 와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스페인과 칠레는 물량 대비 금액이 낮아 중저가 와인으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고가 와인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가격이나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와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페루아'



골프와인으로 불리는 '1865'



'샤또 무통 로칠드'의 아트 라벨들

때문이다. 페루아는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지형과 지질, 기후 조건 등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와인 마케팅은 페루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와인도 점차 유통이 글로벌화되며 페루아보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판매용 마케팅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시장과 자본, 비평가, 양조컨설턴트가 주도하는 와인 상품이 늘어나는 중이다.

산지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비판도 받지만 여전히 보르도 출신 양조컨설턴트인 '미셸 롤랑'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또 와인을 구매하기 전에 미국 와인비평가 '로버트 파커'의 의견은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트 와인에서 골프 와인까지 새로운 마케팅의 시대

아트 와인의 장을 연 '샤또 무통 로칠드',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몬테스', 골프 인구의 급증에 맞춰 브랜드한 '1865' 등은 문화 상품 형태로 스토리텔링한 와인 브랜드들이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 문화 상품으로까지 와인을 연결하게 됐을까?

아트와인의 대명사인 '샤또 무통 로칠드', 이 와인이 유명해진 것은 라벨 디자인을 혁신했기 때문이다. 샤또 무통 로칠드는 1945년부터 매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와인 라벨을 의뢰해 제작하고 있다. 아티스트 라벨은 원래 그 해 수확한 최고의 포도로 만든 와인 빈티지를 축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평범한 라벨에 시대별 유명 화가의 예술 작품이 반영돼 왔다. 라벨 디자인에 참여한 아티스트만 봐도 세자르, 샤갈, 칸딘스키, 피카소, 앤디 워홀 등 현대 회화의 거장들이 즐비하다. 라벨 컬렉션은 현대 회화 걸작선이 됐다. 아트 마케팅은 예술 작품을 통해 와인을 고급 예술 상품으로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에서는 국민 와인으로 알려진 '몬테스'가 대표적 브랜드다. 몬테스는 생산 와인의 90%를 수출할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몬테스 와인의 이미지는 '천사'다. 모든 와인 라벨에 각기 다른 모양의 천사 이미지가 있다. 나무 와인 박스의 천사 문양은 인테리어 소품으로까지 쓰이기도 한다. 몬테스의 천사 이미지 마케팅이 국내에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골프와인으로 불리는 '1865'은 국내 스토리텔링 와인의 최고봉이다. 칠레 와인은 최근 국내에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이 중 '1865' 브랜드는 독특한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골프와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해 유독 국내에서 유명 와인이 됐다. 1865는 '18홀 65타에서 18세에서 65세가

지'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골프장에서 어울려 마시는 와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이 간결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나라가 1865의 최대 소비국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와인 시장에서의 마케팅 성공사례는 많다. 하지만 수많은 와인 브랜드를 모두 일일이 차별화해 마케팅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아 와인시장에서 성공하기가 다소 제한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와인을 문화 상품으로 대중화하면서 외식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연말만 되면 매년 술에 찌든 희식 자리에 불만이 많은 고상한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와인매너

1. 와인 선택 기준

- 와인의 선택은 호스트(Host)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주문한다.
- ▷와인은 식사 메뉴를 주문한 후에 소믈리에(Sommelier)나 지배인(Manager)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비싼 와인이 꼭 좋은 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맞게 추천을 받아서 선택한다.
- ▷일반적으로 육류 요리에는 레드 와인(Red wine), 생선 요리에는 화이트 와인(White wine)을 선택하고, 식후주(Desert wine)는 주로 세미 스위트(Semi-sweet) 와인이나 코냑(Cognac)을 즐기기도 한다.

2. 와인 테이스팅 방법

- 호스트가 와인을 테이스팅(Tasting)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와인을 마시기 전에 호스트가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 와인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와인이 변질된 경우를 제외하고 맛이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
- ▷호스트가 테이스팅 시에는 제일 먼저 주문한 와인이 맞는지 라벨(Lable)을 확인한다.
- ▷와인 잔에 비친 와인의 컬러를 확인하고, 잔을 2~3번 돌려서 향(Aroma)을 음미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또는 "오케이(OK)" 등으로 확인해준다.

3. 와인 즐기는 방법

- 와인을 즐기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 매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와인은 요리와 함께 시작해서 요리와 함께 끝내는 식중주로, 디저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마신다.
-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상태로 와인을 마신다든지, 와인을 몇 잔씩 연속해서 마시면 와인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 ▷와인을 마실 때는 와인 잔의 스템(Stem·손잡이) 부분을 친다. 건배할 때도 잔과 잔을 부딪치지 않으며, 잔을 얼굴 높이로 들고 주위 사람과 눈으로 건배한다.



나만의 겨울왕국은 어디일까

눈의 계절에 만나는 국외 겨울 여행지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한껏 움츠러드는 계절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색다른 여행이 필요하다. 가슴 설레는 함박 눈 소식과 함께 낭만적인 겨울 여행이 더욱 기대된다.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국내 겨울 여행지와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살짝 들여다 봤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



하얼빈 빙등제로 잘 알려진 하얼빈 국제 빙설제는 1963년에 시작 됐지만 공식적인 개최는 1985년 제1회 하얼빈 국제 빙설제가 열리면서 부터다. 매년 1월 5일에서 2월 말까지 개최되는 눈과 얼음의 축제로 빙등제와 빙설제가 함께 열린다. 빙등제는 자오린공원에서 열리는데, 이 공원은 중국의 항일 영웅인 리자오린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공원이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자신의 시신을 묻어 달라고 유언했던 하얼빈 공원의 현재 이름이기도 하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중국 대륙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해마다 1,500여 점 이상이 전시되며 세계 3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꼽힐만큼 오랜 역사와 엄청난 규모, 환상적인 볼거리를 자랑한다. 정식 개막은 1월이지만 12월말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하얼빈 각지의 공원을 중심으로 얼음 조각과 눈 건축물이 전시되고 형형색색의 LED 조명으로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뉴질랜드 남섬 테카포 호수



레이크 테카포는 만년설과 푸른 호수, 수풀로 뒤덮인 그림 같은 곳이다. 레이크 테카포와 그 주변 맥켄지 컨트리에 있는 호수는 오묘한 푸른빛을 띠는데,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과 암석성분이 만나 특유의 우윳빛 푸른색을 자랑한다. 호수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은 여행객을 위한 마을로 다양한 카페와 기념품 상점이 들어서 있다. '선한 목자 교회'로 불리는 호숫가 교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교회의 창을 통해 마운트쿡을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교회 옆에는 유명한 '양치기 개 기념상'이 있다. 날씨가 좋은 날 저녁에는 마운트 존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할 수도 있다. 테카포 온천 풀에서는 테카포 호수와 투섬 산맥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온천을 둘러싼 소나무 숲이 지역 고유의 고산 식물과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겨울이면 온천 풀 주변으로 눈이 쌓여 더욱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캐나다 알버타주 스노우슈잉(Snowshoeing)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알버타주는 서쪽으로는 로키산맥, 동쪽으로는 배드랜드, 북쪽으로는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를 경계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의 미국 몬태나 주와는 국경 부근의 국제 평화공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알버타에는 다섯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유네스코가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를 느낄 수 있다. 300개가 넘는 주립공원과 휴양지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터전이다. 밴프 국립공원 내 1,600km²의 하이킹 코스에서는 사슴, 엘크, 무스, 큰뿔양 심지어 곰을 만날 수도 있다. 알버타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만큼이나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스노우슈잉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서 신는 설피와 비슷한 눈신이다. 눈신을 신고 평화롭고 장대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순백의 겨울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동식물전문가가 동행하면서 눈신을 신고 걷는 법부터 로키의 생태에 대한 다양한 지식까지 상세히 알려 준다. 산악지역 깊숙이 체험해 보고 싶다면 스노우슈잉을 고려할만 하다.

홋카이도 조잔케이 온천마을



조잔케이는 연간 24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홋카이도의 유명한 온천마을이다. 삿포로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부담 없는 거리도 이곳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나트륨 염화물 온천으로 몸속 깊숙이 온기를 전달한다. 총 56군데의 원천에서 60~80℃의 온천수가 1분에 8,600L씩 샘솟고 있다. 온천의 기원은 1866년 수행승이었던 미이즈미 조잔이 치

료 온천지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특히 조잔케이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4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마음껏 온천을 즐길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잘 조성된 산책로와 삿포로 국제 스키장 등 부근의 관광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또 나카야마 고개를 넘어 도야호수로 이어지는 관광코스의 중간 지점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체코 프라하의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는 체코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 프라하 거리는 활력으로 가득찬다. 프라하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년 11월 29일에 시작해 1월 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마켓들은 바츨라프 광장과 올드타운 스퀘어에 위치하며 하벨스카시장, 평화광장, 공화국광장에서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시장을 찾아볼 수 있다. 프라하 전시장에 위치한 다른 마켓은 뷔스타비스테(Vystaviste)이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장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된 대형 트리기가 있는 올드타운 스퀘어 마켓이다. 이곳에서는 장난감 조각, 레이스 천, 세라믹, 유리 용품 등 크리스마스 장식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많은 양의 잉어가 판매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체코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육류 대신 튀긴 잉어를 감자 샐러드와 함께 즐겨 먹기 때문이다. 마켓의 분위기에 더욱 심취하고 싶다면 생강 케익, 바비큐 소시지와 함께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거리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구고객본부지부 편성순

우리 딸이 비록 캐릭터 응모전에서 떨어졌지만 참가상으로 상품권 받고 무척 좋아했던 우리 야구단입니다. 상품권, 꼭 받고 싶습니다.

달서지부 박순목

'길'을 읽고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2015년은 kt wiz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네요. 지역연고 팀인 삼성을 응원하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kt wiz가 탄생하고 나서는 은근히 애사심이 발동해서 자주 갔었죠. 매년 응원할 때마다 지는 게 임이었지만 웬지 가슴이 뿌듯하고 많이 흥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수가 되어 같이 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결제시장의 혁명, 핀테크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더 다양한 정보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본사지부 IT전략기획팀 이규현

정보통신 130주년 기념을 자축하려 kt wiz 경기에서 하나 된 9천여 선배님들의 우렁찬 함성과 열정. 이번 '길'의 기획특집 기사와 표지가 매우 인상적이고 현장감 있게 실어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IMO운용센터지부 기업솔루션본부 박진순

금번 소식지 첫 장의 KTTU View '오늘의 땀방울은 내일의 결실' 내용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가을 냄새 진하게 나는 글과 그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슴을 울리는 기사, 많이 실어주세요.

부천시지부 정영호

이슈 및 뉴스거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길' 소식지 즐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유선운용센터지부 손영범

열심히 달려온 kt wiz 의 소개를 보고 처음 걸음마는 뒤뚱거리 어설프게 보였지만 내년에는 더욱 멋진 야구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KT의 모습도 매일 매일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광화문지부 이영숙

지난 호에 나온 '임직원의 뜨거운 함성, KT 위즈파크를 흔들다'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식구라 그런지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지면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꼭 회사소식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기사 많이 부탁 드려요.

강북고객본부지부 김용주

금년 하반기에 가능성을 보여줬던 만큼 내년 시즌에는 더욱 분발하여 시즌 우승을 하길 기원합니다. kt wiz 파이팅!

대구고객본부지부 김성욱

새희망의 '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호의 휴직제도 관련 사항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칼럼이나 토크 등,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기사와 정보 부탁 드립니다.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이희천

회사소식뿐 아니라 알고 있으면 좋을 여러 가지 소식에 노보를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면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살짝 토로해 보면서 새해에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길!



KTTU QUIZ

전남유선운용센터지부에서 단체도전에 성공한 것은 무엇일까요?(16페이지 참조)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D
may, 27 2015

NEWS

No 34747/53

직장인 김모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원을 납입해 온 김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 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뒀야 하지만 A업체가 회원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 온 것이다. 김씨는 "상조업체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중간기사 생략

문제는 부실상조업체들의 난립이다.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기반의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10~20개씩 감소해 지난해 9월 말에는 228개까지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돼 문을 닫았다.

... 중간기사 생략

국내 상조시장 감사를 담당하는 봉원오 공정위 조사관은 "2010년 상조업체들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법 규정이 생긴 후 지난 5년여 동안 총 9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올 1분기에만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꽤 큰 숫자다. 8개 업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지만 나머지 6곳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 중 50%를 예치해야 하는 등 상조업 관련 규정을 어겨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이중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조로 처음 등록한 AS 상조등 규모가 꽤 큰 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상조업체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809호 (2015.05.27~06.02일자)기사입니다>

(주)다운플랜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부실상조 업체는 고객납입금(회비)을 훼손하여 부실이 발생하였기에 (주)다운플랜은 고객납입금(회비)을 **100%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준용하여 고객납입금의 50%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 회원은 상조 또는 웨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님의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본사에서 직접 전국을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은 전국 다수의 장례식장과 웨딩홀을 계약하여 회원님께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신청 | 1577-1555 www.daonplan.com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본사 6층
TEL. 1577-1555, 031-727-4803~5 FAX. 031-727-4809